



주일에배 Sunday Worship

- 1부: 10시
- 2부: 11시 30분
- 사회/설교: 서일원 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다같이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2. 아름다우신

기 도 다같이

- 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신앙이 되게 하소서.
- ② 질리나한인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되게 하소서.
- ③ 제직들과 조장들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소서.
- ④ 욕심과 헛됨 마음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 ⑤ 슬로바키아 내 선교단체들과 교회 청년부에 부흥을 주소서.
- ⑥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좇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성경봉독 서일원 목사

시편 51편 3-5절 (구약 p.839)

설 교 설교자

“예배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2)”

헌 금 다같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광 고 사회자

축 도 서일원 목사



수요일에배 Wednesday Worship | 수요일 오후 7:00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잠정 중단합니다.



목회자 코너 Pastoral column

예배를 위협하는 것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교회 안에 성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형태의 예배 모습들이 자리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절제되지 못한 채 소란스러운 모습들,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메시지와 찬양들,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신비적 현상들과 은사 강조 등이 교회 한편에 파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유독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금요기도회나 철야기도회를 중심으로 이런 모습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점차 주일 예배에도 별도의 순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4년 캐나다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 사람들이 이상하게 웃고,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무질서하게 춤추다가 몸을 떨면서 쓰러져 마비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5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의 펜사콜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백대하, 42:정이철, “토론토, 펜사콜라에서의 거짓 부흥”참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론이 그런 현상을 더 부추겼습니다. 지금은 신사도주의로 한국교회 안에서 경계의 대상이 됐지만,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런 현상이 무분별하게 수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모습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현상과 관련지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지 못했습니다.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에르 삼, 제에르 삼”(사 28:13, 새번역). 단어들을 반복할 뿐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 내에 의외로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모습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만들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요 4:23).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자유, 그리고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비슬라-머리, 「요한복음」, WBC, 211).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비스러운 현상을 좇아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롬 1:22). 우리는 예배를 위협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찬양 Praise

나의 영혼이

(원제 : 오직 주만이)

시편 62, 63 편 이육성 곡

1. 나의 영혼이 - 장장히 하나님만바라기여 -
2. 나의 영혼이 - 간절히 여호와를갈망하며 -

나의 구원이 - 그에게 - 서 - 나 - 는 도 다
나의 입술이 - 여호와 - 를 - 찬 - 양 하 리

나의 영혼아 - 장장히 하나님만 - 바라라 -
나의 영혼이 -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

나의 소망이 - 저에게 - 서 - 나 - 는 도 다
나의 평생에 - 여호와 - 를 - 송 - 송 하 리

오직 주만이 - 나의 반 - 석 - 나의 구 - 원 - 이시 니
오직 주만이 - 나의 산 - 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리 리

나의 구원 나의 영 광 하나님께 있으 니 내
희의 - 반 석과 - 피난처 되 시 네 - 오직

◇ 주일모임안내

모임	안 내
오전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학생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마더와이즈	
오후 성경공부	

◇ 주중모임안내

모임	안 내
큐티나눔모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합니다.
수요기도회	



I. 공통기도제목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성경말씀을 배우고 익혀 바른 믿음을 키우게 하소서.
3.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Hermanovce nad Topľou 교회 - Peter Prištiak 목사

II. 주간기도제목

일	주제	기 도 제 목
5일 (주일)	2020 하반기	1. 2020년 하반기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하소서. 2. 인간적인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그릇치지 않게 하소서.
6일 (월)	형제 교단	1. 목회자, 교단 임원들, 각 교회 장로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소서. 2.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7일 (화)	코로나 19	1.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에 더 힘쓰게 하소서. 2. 치료제/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전세계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8일 (수)	사회	1.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책들을 실행하게 하소서. 2. 물질주의가 팽배한 지금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9일 (목)	주일 학교	1. 가정 안에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지키며 자라나게 하소서. 2. 예수님을 알아가며 중심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소서.
10일 (금)	제직	1.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을 통해 강건하게 하소서. 2. 믿음 안에서 교회 일들을 결정하며 이끌어 가게 하소서.
11일 (토)	예배	1. 중심의 진실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를 위한 예방수칙
예방수칙 준수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① 손소독, ② 마스크 착용.
- 사택구입 설명회
오늘 예배 후 사택구입 관련 설명회가 있습니다.
- 조장 세미나
일시: 7월 5일(주일) 오후 2시
장사: 이창순 목사(서울 서부침례교회 담임)
 -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신학대학원(M.Div)
 -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전공(Th.M)
 -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 줌(Zoom)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창립 16주년 기념주일
다음 주일(12일)은 창립 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 미취학/어린이 예배 영상 안내
주일학교 어린이는 유튜브에서 '교회진흥원'을 검색해서서 영상을 통해 예배해 주기 바랍니다.
- 예배영상 제작 중단
3개월 동안 예배영상을 제작해주었던 정세영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장기대출 도서 반납 요청
오랫동안 대출하고 있는 도서를 반납 바랍니다.
- 축하
지난 6월 29일에 김순옥 자매님이 건강히 출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봉사위원 | Volunteers in Month

※ 코로나19 완전 해제 이후 봉사위원을 게시하겠습니다.

KÓREJSKÝ ZBOR CIRKVI BRATSKÉ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섬기는 사람들

- ▶ 담임목사: 서일원 ▶ 제직: 김영수, 김은혜, 박시문, 박영환, 서제원 ▶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 ▶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